

의심

지난 주 해가 진 후 컴컴한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. 차고 밖에 자동차를 주차 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땅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. 그 정체는 하얀 색의 페인트 같기도 했고 잘 지워지지 않는 화학 용품 같기도 했다. 마침 비가 조금 온 때여서 발로 비벼보니 약간은 지워졌지만 아주 강한 성분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.

걱정이 시작되었다. 무엇일까? 왜 차고 앞에 주차 되어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있을까? 그래서 손전등을 가지고 옆으로 걸어서 가 보았다. 가는 길에도 몇 군데에 자국이 있었지만 양쪽 집들의 주차장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. 그래서 더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. 분명히 페인트로 도둑질하기 위하여 그 무언가 작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페인트가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.

한참을 서 있으며 걱정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다.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심은 쉽게 떠나가지 않았다.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나에게 옆 집 할아버지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왔다.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차장에 있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었다. 그리고 며칠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걱정을 이야기 했다.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거위(Goose)들 똥이라고 말씀해 주셨다. 그러면서 당신 집에도 가끔 창에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다.

괜히 의심을 하면서 며칠을 지냈다는 생각에 내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. 거위들이 와서 실례한 것을 가지고 의심에 의심이 쌓여 수 십 명의 도둑이 나의 집을 털러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이다.

의심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걱정과 근심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새로이 깨닫는다.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심하며 걱정하는가? 의심의 눈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 같이 또한 일어날 일도 아닌 것을 벌써 일어난 것 같이 생각하며 걱정하고 낙심했는가?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되는 발전성 없는 의심들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.

하나님은 “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” (야고보서 1장 6-8절)라고 말씀해 주신다.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?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?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? 답은 분명하다.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.

잘못된 의심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.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전부 맡기자. 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풍성하게 된다.

그 거위 똥은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. 꽤나 강한 성분인가 보다. 내가 있을 때에 왔다면 과자 부스러기라도 던져 주었을 텐데.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중요한 일만 보고 떠난 거위들이 궁금해진다.